

73.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

<p>마태복음 12:15-21</p> <p>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</p> <p>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</p> <p>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</p> <p>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</p> <p>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</p> <p>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</p> <p>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</p>	<p>15 Jesus, aware of this, withdrew from there. And many followed him, and he healed them all</p> <p>16 and ordered them not to make him known.</p> <p>17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Isaiah:</p> <p>18 "Behold,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, my beloved with whom my soul is well pleased. I will put my Spirit upon him, and he will proclaim justice to the Gentiles.</p> <p>19 He will not quarrel or cry aloud, nor will anyone hear his voice in the streets;</p> <p>20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, and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quench, until he brings justice to victory;</p> <p>21 and in his name the Gentiles will hope."</p> <p>(Mat 12:15-21 ESV)</p>
<p>토마스 왓슨</p> <p>“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영적인 꿀벌집이니, 이로 인해 모든 상한 마음들 안으로 위로가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. 육신이 허약해 실신한 사람에게 각성제를 주는 것처럼, 나 또한 죄로 인해 상한 죄인들에게 각성제를 좀 건네 기운을 차리게 하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옹처럼 잣더미에 앉아 스스로의 비루함을 곱씹으며 낙담하는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. 영혼이 말합니다. “아, 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,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주신단 말인가? 나보다 더 큰 은사며 은혜를 가진 자들이야 하나님의 눈길을 받겠지만, 슬프게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.”</p> <p>여러분,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괴롭습니까?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. 여러분이 상한 갈대보다 더 쓸모 없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럴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주께서는 상한 갈대만큼의 쓸모없는 처지를 위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“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”입니다. 주께서는 결실많은 무화과나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가리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게 꺾인 갈대로 보이겠지만,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스스로 쓸모없다하여 낙심으로 가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보더라도, 동시에 그리스도를 귀하신 분으로 본다면,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,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”</p>	
<p>“가장 뛰어난 성도들 안에도 죄와 은혜가 얽혀 있습니다.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, 교만과 겸손이, 세상과 천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. 경건한 사람들의 은혜에 저 오래 묵은 돌 능금나무의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 아니요 사실 중생한 많은 사람들 안에 보통 은혜보다는 죄악이 더 많습니다. 연기가 너무 많아서 불은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. 불신이 너무 많아서 믿음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. 분노가 너무 많아서 온유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..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보다는 거품이 더 많은 술잔, 혹은 활력보다는 무기력이 더 많은 병든 육신과 같습니다. 그러므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들의 은혜에 많은 죄악이 섞여 있음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.”</p>	
<p>“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많고 은혜가 미약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불꽃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. 이 표현에는 사실 수사법이 들어있습니다. “끄지 아니하실 것이다”라는 것은 다시말하자면 그분께서 그 불꽃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것은 매우쉽습니다. 살짝만 건드려도 꺼집니다.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약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주께서는 은혜의 불꽃을 붙여 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로 살려 놓으십니다. 그분께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는 촛불로 만드실 것입니다.”</p>	

설교질문

1. 16 절에서 주께서는 왜 “자기를 나타내지 말라”라고 경고하셨습니까?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.
2. 18 절에 “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”는 본래 무슨 의미입니까?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왜 이곳에 위치시켰다고 보입니까?
3. 주께서는 그 당시 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엮는 말씀을 전하셨고, 삶을 사셨습니다. 안식일 논쟁만 봐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런데 그렇게 논쟁적인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.
4.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?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혹은, 토마스 왓슨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나 다짐하게 된 것이나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.
5. 주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?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혹은, 토마스 왓슨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나 다짐하게 된 것이나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.